

성수동1가 31-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2021. 04.

(財)高麗文化財研究院

##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허가번호	매장 문화재명				
발굴유형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	발굴 사유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				
매장문화재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31-17번지 일원	매장문화유산포지 면적 m <sup>2</sup>		발굴 면적 301 m <sup>2</sup>		
발굴조사 기관명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단	조사단장 김아관			
발굴기간 2021. 04. 21		책임조사원 최광훈			
현장조사일 1일		조사원 강태홍			
발굴 비용 1,265,000원		준조사원 이정현			
		보조원 홍 현			

출토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	-	-	-	

출토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	-	-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약식보고서로 대체
----------------	-----------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4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오윤석 (인)



###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	---

## 일 러 두 기

1. 이 보고서는 오윤석, 유종의님이 시행예정인 성수동1가 31-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31-17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301㎡이다.
3.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와 유적 분포도, 정사영상은 국토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와 1:5,000 지형도에 조사지역을 표시하였고, 수치지형도의 좌표는 GRS80이다. 본문에 삽입된 고 지도는 유적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판형에 맞게 실었다.
4. 이 조사는 사업시행자인 오윤석, 유종의님의 의뢰를 받아 재단법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04월 21일로 실 조사일수 1일이다.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 목 차 -

I. 調査概要	1
II. 調査経緯 및 経過	2
1. 조사경위	2
2. 조사경과	2
III. 周邊環境	3
1. 자연·지리적 환경	3
2. 고고·역사적 배경	5
IV. 調査方法 및 内容	20
1. 조사지역 위치 및 현황	20
2. 조사방법	20
3. 조사내용	21
V. 調査結果	26

## I. 調査概要

1. 조 사 명 : 성수동1가 31-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출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31-17번지 일원
3. 조사유형 : 표본조사
4. 조사기간 : 2021년 04월 21일 (실 조사일수 1일)
5. 조사면적 :

조사유형	소재지	면적(㎡)	비고
표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31-1번지 일원	301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에 따른 결과

6. 조사기관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7. 의뢰자 : 오윤석, 유종의
8. 조사단구성

조사단장 : 김아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최광훈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1부장)

조사원 : 강태홍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준조사원 : 이정현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 홍현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II. 調査経緯 및 経過

### 1. 조사경위

이번 조사는 오윤석, 유종의념이 시행예정인 성수동1가 31-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에 대한 표본조사로 조사면적은 301㎡이다.

대상지는 현재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의 문화재청 원안가결(문화재청 발굴제도과-1999호(2021.2.19.))에 따라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성동구는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 한 후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고려문화재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여 2021년 04월 21일 우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조사는 동년 04월 21일 실시하였다.

### 2. 조사경과

- 2021년 02월 :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지표조사 공영제 시행
- 2021년 04월 : 건축(신축)허가 조건 통지(성동구)
- 2021년 04월 21일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표본조사 계약
- 2021년 04월 21일 : 현장조사

### Ⅲ. 周邊 環境

#### 1. 자연·지리적 환경<sup>1)</sup>

조사지역이 속한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산하 2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한강의 북안으로 남쪽경계는 한강과 접하고 있다. 한강을 경계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과 접해있으며 동쪽으로는 영동대교를 경계로 광진구의 군자동, 화양동, 노유동이 있다. 북쪽으로는 동대문구의 장안동, 답십리동, 용두동, 신설동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중구의 황학동, 신당동, 그리고 용



지도 1. 서울시 성동구 위치도

산구의 한남동과 경계한다. 또한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부간선도로 등이 한강을 가로지르며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고, 을지로, 청계천로가 동서울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다.

성동구의 남북간 길이는 5.15km이고, 동서간 길이는 6.017km로 동서축이 남북축보다 장형의 형태로 되어있다. 한강과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이 성동구를 가로지르고 있어 성동구의 지형은 대부분 해발 130m이하의 저지대를 이룬다. 특히 동쪽으로 중랑천과 청계천이 흘러와 합류하여, 다시 한강 본류에 유입하면서 조성된 범람원에 해당되는 곳이다. 해발 50m이상의 지역이 20%밖에 되지 않는 평탄한 충적평지이므로 시가지 발달과 교통발달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시가지로 자리 잡은 옥수동, 금호동 일대에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왕십리 로터리에서 을지로로 통하는 도로 연변에는 상가 등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다. 중랑천 동쪽지역은 신개발지이며, 성수동 일대는 영등포동과 구로동 다음으로 많은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성동구의 두드러진 지형적 특징은 한강변에 발달한 하천퇴적지형과 응봉산 등의 산지지형이라 할 수 있다. 하천퇴적 지형과 산지지형 사이의 기복차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최고점인 용마봉 정산과 최저점인 한강 하상과는 고도차가 약 340m 정도이다. 대표적인 하천퇴적지형으로는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류하는 뚝섬일대의 충적지형을 들 수 있다.

지질은 북서부 일대에는 대보화강암(서울화강암)이 한강유로와 중랑천 및 청계천변을 따라 제4기 충적층이 동서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뚝섬일대의 동남쪽에는 홍적세기간 중 한강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홍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계로는 남쪽으로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북쪽으로 중랑천과 청계천이 흘러와 합류하여, 다시 한강 본류에 유입된다.

1) 서울역사박물관,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서울특별시(강북편)』 요약 및 발췌.



지도 2. 조사지역 분포지형도 1:25,000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



지도 3. 조사지역 퇴적양식도 1:25,000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



기온은 한강 연안에 위치해 편서풍대의 영향으로 연평균기온은 13.3℃, 연강수량은 1,499mm 내외이다.

조사지역이 속한 성수1가 제1동은 면적 1.98km<sup>2</sup>, 인구 16,553명 (2020년 기준)이며, 남쪽으로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고 중랑천과 청계천이 북동쪽에서 흘러와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이다.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성수역이, 서쪽으로 640m 이격하여 서울숲역이 위치한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가 등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테마공원인 서울 숲이 조성되어 있다.

## 2. 고고·역사적 배경<sup>2)</sup>

### 1) 고고학적 환경

서울지역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부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선사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한강변과 그 지류인 중랑천·성내천·탄천·양재천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다. 성동구 일대는 한강을 남으로 하고, 남산의 동남 산록과 아차산의 서남 산록 사이에 위치하여 중랑천 유역의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선사문화의 발상지였다.

성동구 지역은 인근의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송파구 가락동유적, 강남구 역삼동유적(현 도곡동) 등과 더불어 한강변 선사문화유적을 통하여 한강유역 문화권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서울지역의 역사시대를 여는 문화집적지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둔촌동<sup>3)</sup>에서 여러면석기가 출토되었고, 암사3동<sup>4)</sup>·하일동(현 강일동) 유물산포지<sup>5)</sup>에서 편석기 등이 확인되며, 고덕동 유적<sup>6)</sup>에서는 주먹도끼와 찌개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송파구 오금동 유물산포지<sup>7)</sup>, 강남구 삼성동 유적<sup>8)</sup> 등에서도 편석기가 확인되었고, 서울과 인접한 하남 풍산동·덕풍동 유적<sup>9)</sup>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한강 남쪽에 인접한 충적지에서 몸돌·망치·모루·찌개·격지 등 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절대연대측정 결과 약 45,000±7,000B.P로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암사동유적<sup>10)</sup>(사적 제267호)으로 신석기시대의 집단취락지이다.

2) 김원룡, 1965, 『한국사전유적유물지명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앞의 책, p.5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서울육백년사』 제1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한강사』.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울특별시 강북편, pp.31~38.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한강문화재연구원, 2007, 『서울 금호 구역 재개발지역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서울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한강문화재연구원, 2007, 『서울 강동구 보훈중앙병원 건립공사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6, 『서울特別市岩寺洞江東市營아파트 再建築敷地文化遺蹟試·發掘調査報告書』.

5)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3, 『강동권역 도시개발사업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6) 경희대학교박물관, 2012, 『서울 고덕동 유적』.

7)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Ⅲ』.

8) 상명대학교 박물관, 2006, 『서울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예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하남 덕풍동·풍산동 유적-하남 미사지구 문화재 발굴조사(B구역)보고서』.

이 유적은 1925년 을축년에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1960년대에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970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4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주거지들을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재발굴조사 하였고, 1990년대에는 교육관을 확장하기 위한 발굴이 실시되어 주거지들이 추가 확인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적지 확대부지와 배수로 공사 등의 간헐적인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유적공원의 시설 준비를 위한 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이듬해 유구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은 송파구 가락동 유적<sup>11)</sup>, 강남구 역삼동 유적<sup>12)</sup> 등이 있고, 최근에 고덕동 유적<sup>13)</sup>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가 확인되었으며, 공렬토기를 비롯하여 석촉 및 석도·관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분묘 유적으로 양재동·우면동·정릉동·고덕동 지석묘<sup>14)</sup>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 취락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봉동 유적<sup>15)</sup>은 청동기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하는 무문토기 관련 유물산포지로서 유구석부 및 공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초기철기시대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를 표지로 하고 있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을 살펴보면, 성동구 응봉<sup>16)</sup>, 노원구 상계동 불암산<sup>17)</sup> 등이 있고, 대모산성<sup>18)</sup> 서쪽부의 성내 평탄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서울 인근 하남시 미사동 유적<sup>19)</sup>이 확인되고 있다.凸자형·육자형·원형·타원형의 주거지와 굴립주 주거지·저장시설·수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중도식토기인 경질무문외반구연호와 함께 심발형토기·장란형토기·호형토기·철도자·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적 중 백제의 대표적 유적은 송파구의 풍납토성(사적 제11호)<sup>20)</sup>·몽촌토성(사적 제297호)<sup>21)</sup>과 그 서남쪽에 위치한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sup>22)</sup>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이보다는

- 
- 10) 서울대학교박물관, 1980, 『岩寺洞』.  
 암사동유적발굴조사단, 1983, 『岩寺洞遺蹟發掘調查報告』.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岩寺洞』.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암사동』,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10책.  
 國立中央博物館, 1994, 『岩寺洞』本冊,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26冊.  
 國立中央博物館, 1994, 『岩寺洞』別冊,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26冊.  
 國立中央博物館, 1999, 『岩寺洞Ⅱ』,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30冊.  
 國立中央博物館, 2006, 『岩寺洞Ⅲ』,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35冊.  
 國立中央博物館, 2007, 『岩寺洞Ⅳ』,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36冊.  
 國立中央博物館, 2008, 『岩寺洞Ⅴ』,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37冊.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7, 『2015 서울 암사동 유적-전기통신 간선공사 구간 내 시굴조사 보고서-』.
- 11) 金廷鶴, 1963, 「廣州可樂里住居址發掘報告」, 『古文化2』.  
 서울대학교박물관, 1975, 『잡실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 12) 金良善·林炳泰, 1968, 「驛三洞住居址發掘報告」, 『史學研究20』, 韓國史學會.
- 13)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서울 고덕동 유적』.
- 14)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강동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 15) 橫山將三郎, 1930, 「京城府外鷹峰遺蹟報告」, 『史前學雜誌』 2-5.
- 16) 橫山將三郎, 1930, 「京城府外鷹峰遺蹟報告」, 『史前學雜誌』 2-5.
- 17) 국립중앙박물관, 2010, 『한강유역 선사유물-橫山將三郎채집자료-』.
- 18)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19)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彌沙里1-5』.
- 20)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1967,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한양대학교박물관, 1996, 『風納土城隣接地域試掘調查報告書』.

멀지만 하남 미사리 유적<sup>23)</sup>에서도 2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조성된 백제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주거지·저장공·구상유구·경작유구 등의 유구가 조사된 바 있다.

고구려 유적은 조사지역의 북쪽으로는 한강 넘어 바로 아차산 보루군<sup>24)</sup>이 위치하고 있다.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군사적인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시설이 아차산성과 아차산 일대의 보루이다. 아차산성은 백제가 처음 조성한 후 신라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아차산 보루는 산꼭대기에 설치한 시설로, 15개의 보루 중 가장 큰 제 4보루는 고구려 성곽에서 보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 건물지·온돌시설·배수시설·저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신라의 유적은 불교유적으로 암사지<sup>25)</sup>가 있다. 원래 이 일대에는 신라시대에 9개의 절이 있어서 구암사라 불렸으나 절은 모두 소실되고 바위절터만 남아 있다. 그 중 암사지는 백중사라고도 불리는데 백제시대 창건되어 백제절이라는 뜻으로 백중사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으나, 1987년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서울 주변의 관방유적은 하남 이성산성<sup>26)</sup>이 있으며, 분묘유적은 하남 덕풍동 수리골 유적<sup>27)</sup>과 하남 덕풍동 유적<sup>28)</sup> 등이 있다. 덕풍동 수리골 유적의 석곽묘는 형식이나 구조를 확인한 결과 6~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덕풍동 유적은 1기의 석실묘와 7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은 불교유적, 유교유적, 분묘유적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불교유적은 암사지 백중사<sup>29)</sup>의 지표면에서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지 초석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당지로 추정되며 건물지 앞으로는 2점의 석탑 옥개석이 확인되는데, 고려 말~조선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유적은 암사동에 위치한 구암서원<sup>30)</sup>이 확인되고 있다. 1667년(현종 8)에 건립된 서원으로 조선시대 한양에 건립된 유일한 서원이다.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되었으며, 2003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분묘유적은 고덕동 유적<sup>31)</sup>에서 석곽묘 1기, 토광묘 49기, 회묘 29기가 확인된 바 있다. 이 분묘

---

2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1984, 『(整備·復元을 위한)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博物館, 1987, 『夢村土城: 東北地區發掘報告』.  
서울대학교博物館, 1988, 『夢村土城: 東南地區發掘報告』.  
서울대학교博物館, 1989, 『夢村土城: 西南地區發掘報告』.  
한성백제박물관, 2016, 『夢村土城Ⅰ』 - 2013·2014년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 발굴조사 보고서 -.  
한성백제박물관, 2016, 『夢村土城Ⅱ』 - 2014년 몽촌토성 북서벽 구 목책 설치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2)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석촌동고분군Ⅰ』.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석촌동고분군Ⅱ』.

23)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彌沙里1-5』.

24)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5, 『아차산 제 3보루 -1차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아차산 시루봉 보루Ⅱ』

25) 동국대학교 한강변 문화유적 발굴조사단, 1987, 『한강변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26) 한양대학교박물관, 1987~2000, 『이성산성 1~8차 발굴보고서』.

2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河南德豊洞수리골 遺蹟』.

28)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하남시』.

29) 동국대학교 한강변 문화유적 발굴조사단, 1987, 『한강변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30) 동국대학교 한강변 문화유적 발굴조사단, 1987, 『한강변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31) 경희대 중앙박물관, 2012, 『서울 고덕동 유적』.

에서는 백자 명기를 비롯하여 청동거울·청동인장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고덕산에는 시도 유형문화재 제 90호로 지정된 광주이씨 광릉부원군과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으로 강동구 명일동에 문희공유창묘역(시도유형문화재 제96호) 강동구 상일동 경주이씨 묘역, 하남 풍산동 밀양 박씨 묘역 등이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져 2019년에 (재)백두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경작지가 위치한다<sup>32)</sup>.

## 2) 역사적 배경<sup>33)</sup>

성동이란 명칭은 도성의 동쪽이란 뜻으로 수도 서울을 에워싼 성곽을 의미한다. 옛날 4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을 통해 도성을 빠져 나오면 동녘으로 전개되는 들녘이 있었는데, 이 들녘을 흔히 동교 또는 전교라 하였다. 전교는 화살을 쏘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말로 살곶이들을 뜻한다.

고대국가로서 마한이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서기전 18년 부여계 고구려 유이민인 온조(溫祚)가 남하하여 한강 유역에 백제국(伯濟國)을 건국하고 점차 마한제국을 병합하여 삼국 중 하나인 백제로 성장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475년 고구려의 남하로 수도를 공주로 옮길 때까지 500여 년간 이 일대를 지배하였다. 한강 유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구려·백제·신라 3국의 쟁패가 계속 이어졌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남하정책을 펴면서 한강 유역을 공략하여 석현성과 관미성 등 10여 성을 함락하고 이어 백제의 서해안을 공격하여 58개 성을 취하였다. 이어 장수왕 때는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살해함으로써 백제를 한강 유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장악하였고, 이 일대에 북한산군(北漢山郡)을 설치하여 80여 년간 다스렸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동맹을 파기하고 이 일대를 독차지하여 북한산주(北漢山州) 혹은 신주(新州)를 두어 관리하였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당나라와 직 접적인 교섭을 통해 고구려·백제에 대항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잇는 수 직라인과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수평라인이 서로 대립되었고, 당나라 세력을 이용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통일을 달성한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면서 한강 유역을 한산주(漢山州) 또는 한주(漢州)로 개칭하고 한강과 접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는 따로 한양군을 두었다. 이로 인해 ‘성동구’는 한산주의 한양군에 속하게 된다.

후삼국시대 ‘성동 지역’은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弓裔)가 895년 한산주 관내의 10여 성을 복속 시킴에 따라 궁예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왕건(王建)이 건국한 고려에 귀속되었다. 고려 건국 초기에는 각 지역에 호족세력들이 건재하였는데 한강 유역 일대에는 왕규(王規)의 세력이 가장 강대하였고, 강감찬(姜邯贊)의 후손인 금주강씨(衿州姜氏) 혹은衿川姜氏) 세력과 풍덕유씨(豐德柳氏) 세력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규는 경기도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금주강씨는 금천구 일대에서

32)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북서지구 북한건축물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정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과 성동구청(<http://www.sd.go.kr/>)을 참고하였다.

활동하였으며, 풍덕유씨 세력들은 한강 하류의 마포 서쪽지역 일대에 웅거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지명은 고려 초에는 양주(楊洲), 문종 이후 충렬왕 때까지는 남경(南京), 충선왕 이후 고려 말까지는 한양부(漢陽府)라 불리었다. 983년(성종 2)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할 때 양주목에 속하였고, 1018년(현종 9)에는 지주사(知州事)로 격하되어 광주목(廣州牧)의 관내에 예속되었다. 이어 1067년(문종 21)에 한강 북부지역에 남경을 설치하면서 서경(西京)·동경(東京)과 함께 삼경체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된 것은 서울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주로 연기사상(延基思想)이라는 일종의 풍수지리적 쇠왕설(衰王說)을 배경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 때 남경의 범위는 동으로 대봉(大峰: 지금의 낙산), 서로 기봉(岐峰: 지금의 안산), 북으로 면악(面嶽: 지금의 북악산), 남으로 사리(沙里: 지금의 용산)에 이르렀다. 1068년에는 남경이궁(南京離宮)을 설치하고, 남경으로의 천도론이 제기되어 1101년(숙종 6) 9월 남경개창도감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남경 궁궐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04년(숙종 9)에 지금의 청와대 부근에 새 궁궐이 낙성되어 왕이 친행해 점검하는 등 거의 천도가 실현될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이듬해 왕이 죽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무인정권과 몽고침략 등의 정치적·군사적 시련을 겪는 사이에 남경은 서경과 함께 국왕 순주(巡駐)의 이경(離京)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되어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漢陽府)로 개칭되었고, 유수를 운으로 고치는 것 외에도 관관과 사록 등의 관직을 두었는데 이는 지위가 격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 말부터 대두되던 한양 천도론은 조선이 개창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개경에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도읍이 필요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 바로 한양이었다. 여러 지역이 도읍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태조는 이들 지역을 직접 답사하기도 하고 신하들을 보내 정밀 조사하도록 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1394년(태조 3) 8월 24일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확정하였다. 이어 9월 1일 궁궐 건설의 실무를 담당 추진하기 위한 기관인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9월 9일에는 한양에 대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궁궐·종묘·사직과 도로의 건설, 각종 관아의 배치 등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도시계획안이 조선시대 500여 년간의 수도 서울을 지탱하여 갔다.

조선시대의 성동구 일대는 한성부 성저십리(城底十里) 이내의 지역으로 한성부 동부의 인창방(仁昌坊)과 남부의 두모방(豆毛坊)에 속하였다. 이 당시 두모방에는 두모포계(豆毛浦契)·신당리계(神堂里契)·전관일계(箭串一契)·전관이계(箭串二契)·신촌리계(新村里契)·수철리계(水鐵里契)·중촌리계(中村里契)가 있었으며, 용산방에는 마장리계(馬場里契)·답십리계(踏十里契)·왕십리계(往十里契)가 있었다.

이 지역은 한강을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일찍부터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조선시대는 두모포가 한강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물산과 목재 등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도 두모포에서 배를 내려 광희문을 통해 동평관(東平館)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도성의 동쪽 교외에 해당하며, 응봉을 중심으로 국왕의 사냥터로서 주목을 끌던 곳이었다. 이른바 살곶이벌로 응봉 기슭에는 매 사냥을 관장하는 응방(鷹坊)이라는 관청을 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

나라 조선시대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이 지역에 있었으며, 조선 전기에는 군사들의 열무장으로도 사용되던 곳이었다. 옥수동에는 조선시대 전문관료를 양성하는 독서당(讀書堂)이 있었으며, 한강에서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던 동빙고(東氷庫)가 있었다.

1911년 4월 1일 5부 8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경성부의 인창면(仁昌面)과 두모면(豆毛面)에 속했으며, 1913년 인창면 일부가 경성부 동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경성부의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경성부를 축소시킬 때 인창면이 폐지되었고, 이 일대는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蠶島面)과 한지면(漢芝面)에 편입되었다. 그 뒤 1936년 고양군 한지면 내 9개리가 경성부에 재편입되면서 동부출장소에 소속되었으며, 1943년에는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성동구가 신설되었다.

1946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되고, 1949년 서울특별시로 승격되면서 서울시 확장에 따라 독도면을 편입해 독도출장소를 두었다. 1963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의 4개면인 구천면(九川面)·중대면(中垵面)·대왕면(大旺面)·언주면(彦州面)이 성동구에 편입되었고, 천호·송파·언주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73년 송파·언주출장소를 폐지하고, 천호·영등포출장소를 설치했으며, 영등포구 잠원동과 서초동, 양재동이 성동구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성동구 중곡동 일부가 동대문구 면목동으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가 성동구 중곡동에 편입되는 등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 1975년에는 강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성동구 관할하에 있던 한강 이남의 영동·천호출장소가 성동구에서 분리, 강남구로 편입되었다. 또한 성동구 관할의 신당동 상왕십리 일부가 중구로, 성동구 옥수동 일부가 용산구로, 성동구 중곡동과 장안동 일부가 동대문구로, 동대문구 답십리 제4동과 용두동·장안동 일부를 합하여 용답동이 신설되면서 성동구로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7년에는 강남구 신천동 일부를 성동구 구의동에 편입했고, 1995년에는 동일로를 경계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됨에 따라 성동구 20개 동, 광진구 16개 동으로 분구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왕십리제1동과 도선동을 왕십리 도선동으로, 금호2기동과 금호3기동을 금호2·3기동으로, 옥수제1동과 옥수제2동을 옥수동으로 통폐합(20동 → 17동)시킨 이래로 현재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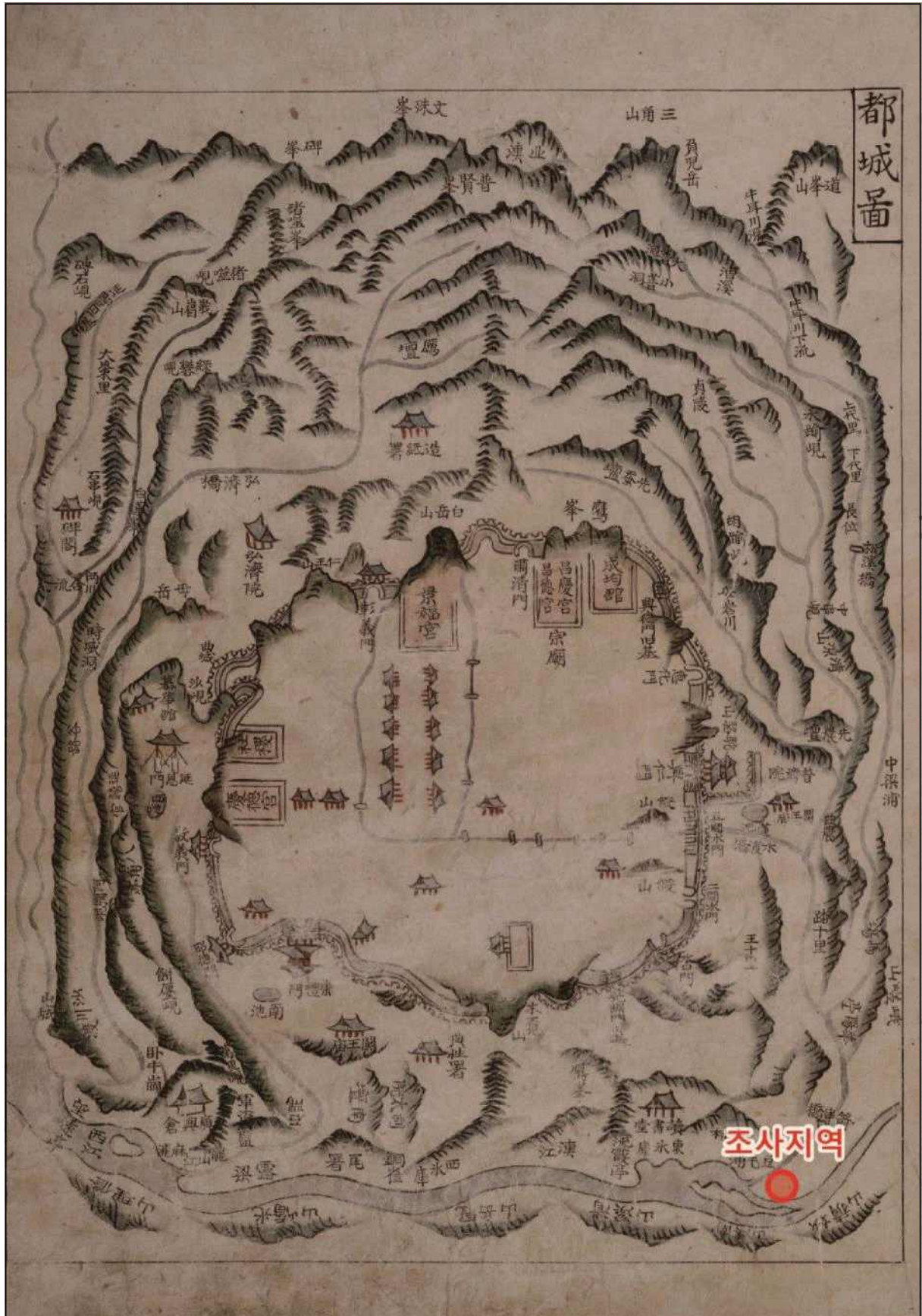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성수동은 옛날 산덕정이란 정지와 독도 수원지(水源地)가 있던 곳이라 하여 각각 첫머리를 따서 성수(聖水)라 했다는 설과 한강을 낀 물가 마을로,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깨끗하고 고마운 물이라는 뜻으로서 성수라는 동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독섬·전관·전교 등으로 불리어 왔으며 1751년(영조 27) 수정책자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남부 두모방(성외) 전관1,2계 전관동이었으며 갑오개혁(1894년) 때는 남서(南翼) 두모방 전관1,2계 전관동이었다.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두모면 독도1,2계가 되었고 1914년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동독도리(현 성수동2가), 서독도리(현 성수동1가)가 되었다.

그 뒤 1949년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서울시 성동구에 편입되었으며 1950년 서울특별시 조례 제10호에 의해 성수동1, 2가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도 4. 大東輿地圖-京兆五部圖(1861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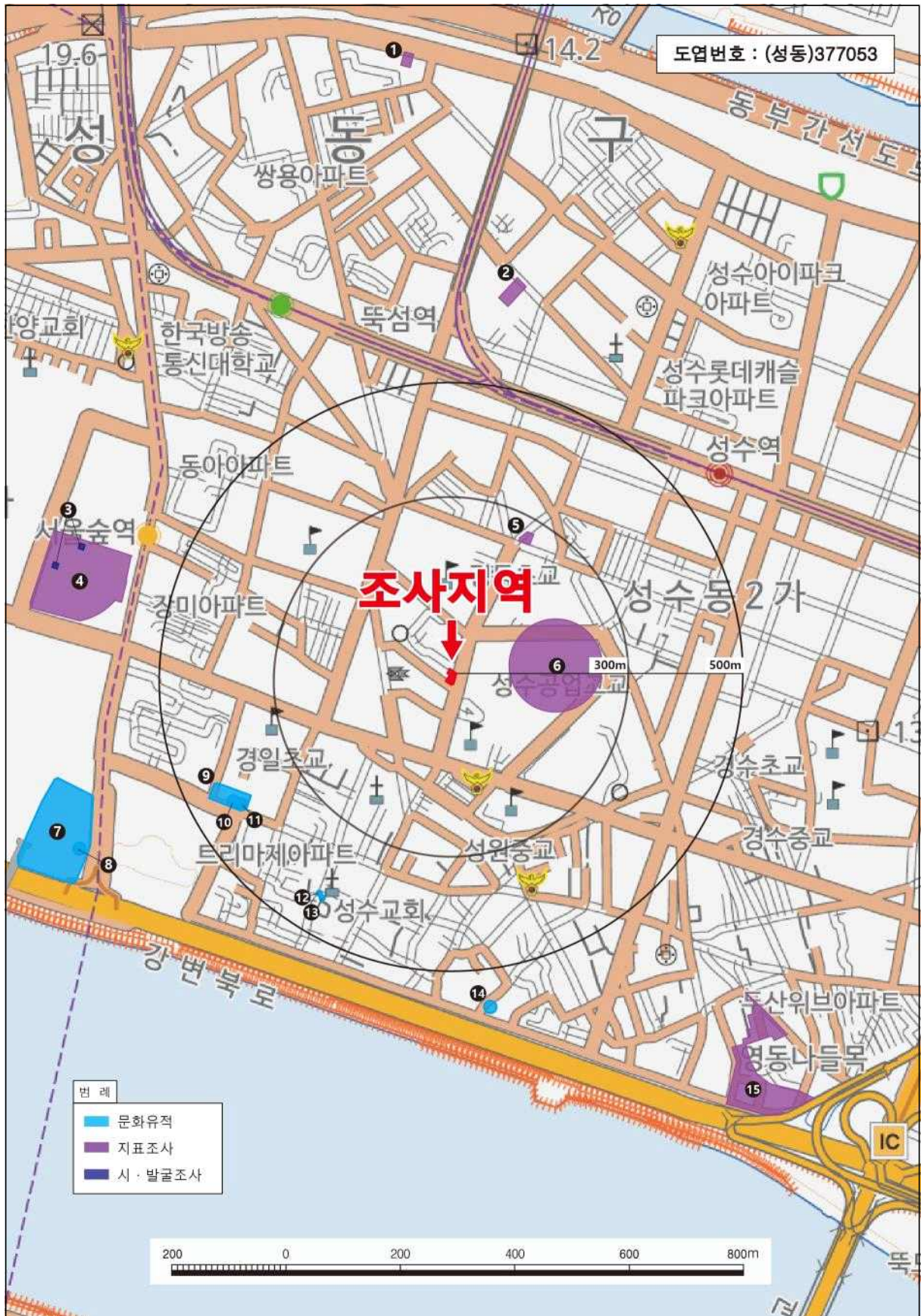


지도 5. 廣輿圖(19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도 6. 근세지도 1:25,000(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1917년)



지도 7. 조사지역 주변유적 분포도(S=1:10,000), 1:25,000축척에서 변경.

연번	유적명	소재지	시대	성격	출전
1	서울 성수동1가 13-8번지 표본조사대상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8번지	시대미상	표본조사 대상지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20, 『서울 성수동1가(13-8번지) 업무시설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복권기금) 지표조사 보고서』.
2	서울 성수동2가 유적추정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번지	역사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재)화서문화재연구원, 2021, 『서울 성수동2가(284-124번지) 성수CF-TOWER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서울 뚝섬지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85-701번지	조선	경작지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뚝섬지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	성수1가제1동 유적추정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제1동 685-701번지 일원	시대 미상	유적 추정지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18, 『뚝섬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5	성수동2가 316-16번지 표본조사대상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6-16, 316-10번지	조선~ 근대/일제 강점기	생활 유적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21, 『서울 성수동2가 316-1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복권기금) 지표조사 보고서』.
6	서울 성수동 KT현대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333-1번지 외	유적없음		건국대학교박물관, 2005,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 현대아파트 신축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7	뚝도수원지제1정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근대/일제 강점기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의 문화재』 1.
8	성동구 성수동1가 느티나무 (서4-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조선	노거수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 <a href="http://gis-heritage.go.kr/">http://gis-heritage.go.kr/</a> )
9	성동구 성수동1가 성덕정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10		건물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5, 『서울六百年史』 문화사적편.
10	성동구 성수동1가 느티나무 (서4-3)			노거수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 <a href="http://gis-heritage.go.kr/">http://gis-heritage.go.kr/</a> )
11	성동구 성수동1가 회화나무 (서4-2)				
12	성동구 성수동1가 느티나무 (서4-8)				
13	성동구 성수동1가 느티나무 (서4-9)				
14	성동구 성수동2가 회화나무 (서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416-2			
15	표본조사 대상구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19-4		생활 유적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18, 『서울 성수전락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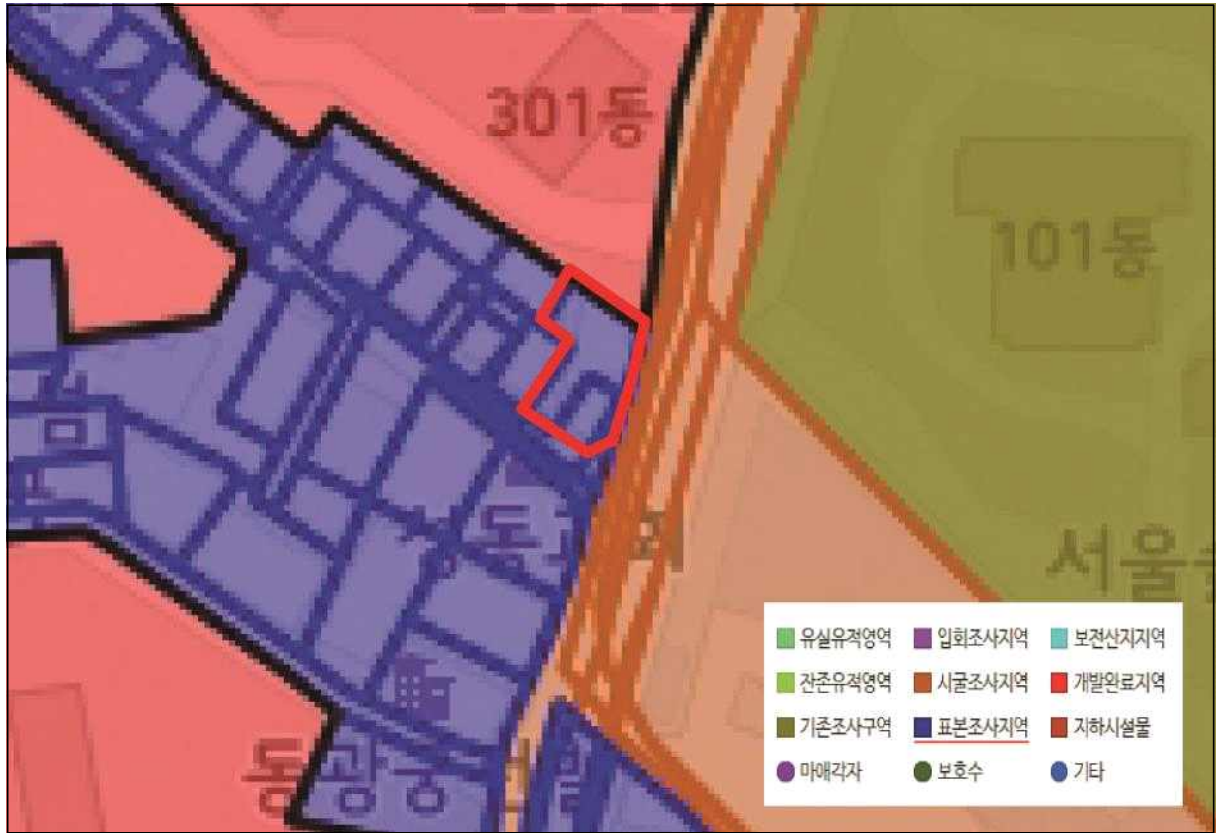
표 1. 주변유적 분포표



지도 8. 조사지역 위치도(1:5,000)



사진 1. 조사지역 정사영상(2020년, 출전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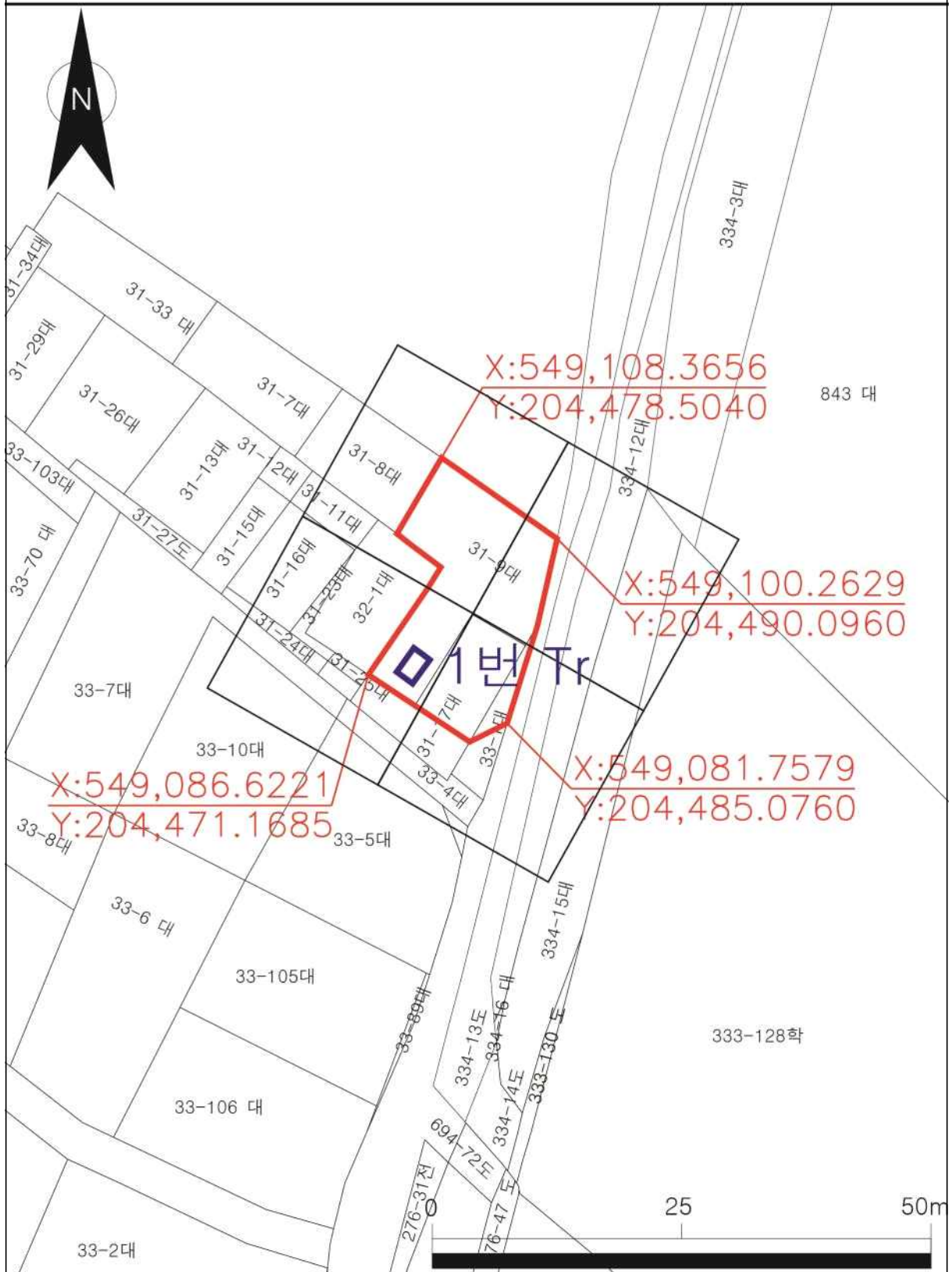


지도 9. 서울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도(출전-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



지도 10. 조사지역 토지이용 현황도(1972년, S=1:25,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37-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도면 1. 조사지역 지적도 및 트렌치 배치도

## IV. 調査方法 및 内容

### 1. 조사지역의 위치 및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31-17번지 일원으로 ‘서울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도’의 표본조사지역 내에 위치한다.(지도9) 조사면적은 301㎡이다.

대상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강변북로를 타고 영동대교 북단에서 ‘군자교,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와 약 200m 직진한 후 교차로에서 ‘서울숲’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뚝섬로를 따라 약 900m 이동한 후 뚝섬로5길로 우회전하여 약 100m 이동하면 좌측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며, 북서쪽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흘러와서 합류하는 지점이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가 지나가며, 대상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학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다. 서쪽 강 안쪽으로는 테마공원인 서울숲이 조성되어 있다.

과거 지도를 보면(지도 6, 10) 1910년대에 조사지역과 그 일대는 취락 및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도시취락지로 사용되었고 주변으로 공업용지와 경작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지에도 지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었고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곳은 과거부터 취락 및 경작지 등으로 사용되면서 원지형의 형질변경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성동구 성수동 1가 성덕정지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는 시도유형문화재 제 72호인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이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sup>34)</sup>.

### 2. 조사방법

- 1) 현장조사는 표본조사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①-4 다)항에 근거하여 조사지역의 면적 2%이하의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 2) 트렌치는 폭 2m, 길이 3m를 기본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1기를 설치하였다. 트렌치는 주변에 도로 및 건물의 붕괴우려로 인해 안전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잔존하고 있는 지하 구조물 벽에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였다.
- 3) 트렌치는 문화층과 유구가 확인되는 곳까지, 확인되지 않은 곳은 지형의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반암까지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4) 주 32)보고서 참조.



4) 굴착이 완료된 트렌치는 전경 및 토층을 사진 촬영하였고, 토층도의 작성 및 제원을 충실히 기록하였다.

### 3.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며, 북서쪽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흘러와서 합류하는 지점이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학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과거 항공사진을 살펴보았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주택 및 경작지, 공업시설로 사용되었다. 대상지는 1970년 토지이용 현황도를 보면 도시취락지에 위치하여, (지도 10) 이곳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건축물의 조성되어 있으면서 건설과 철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2~7)

트렌치는 현장상황과 안전상태를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으로 1기를 설치하여 유구의 부존여부와 층위양상을 확인하였다.

트렌치의 층위양상은 건축물의 하부구조 밑으로 갈색 사질토, 회갈색 사질토, 탁한갈색 사질토가 약 55cm ~ 120cm의 두께로 확인된다. 이러한 층위양상은 모두 한강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질층이며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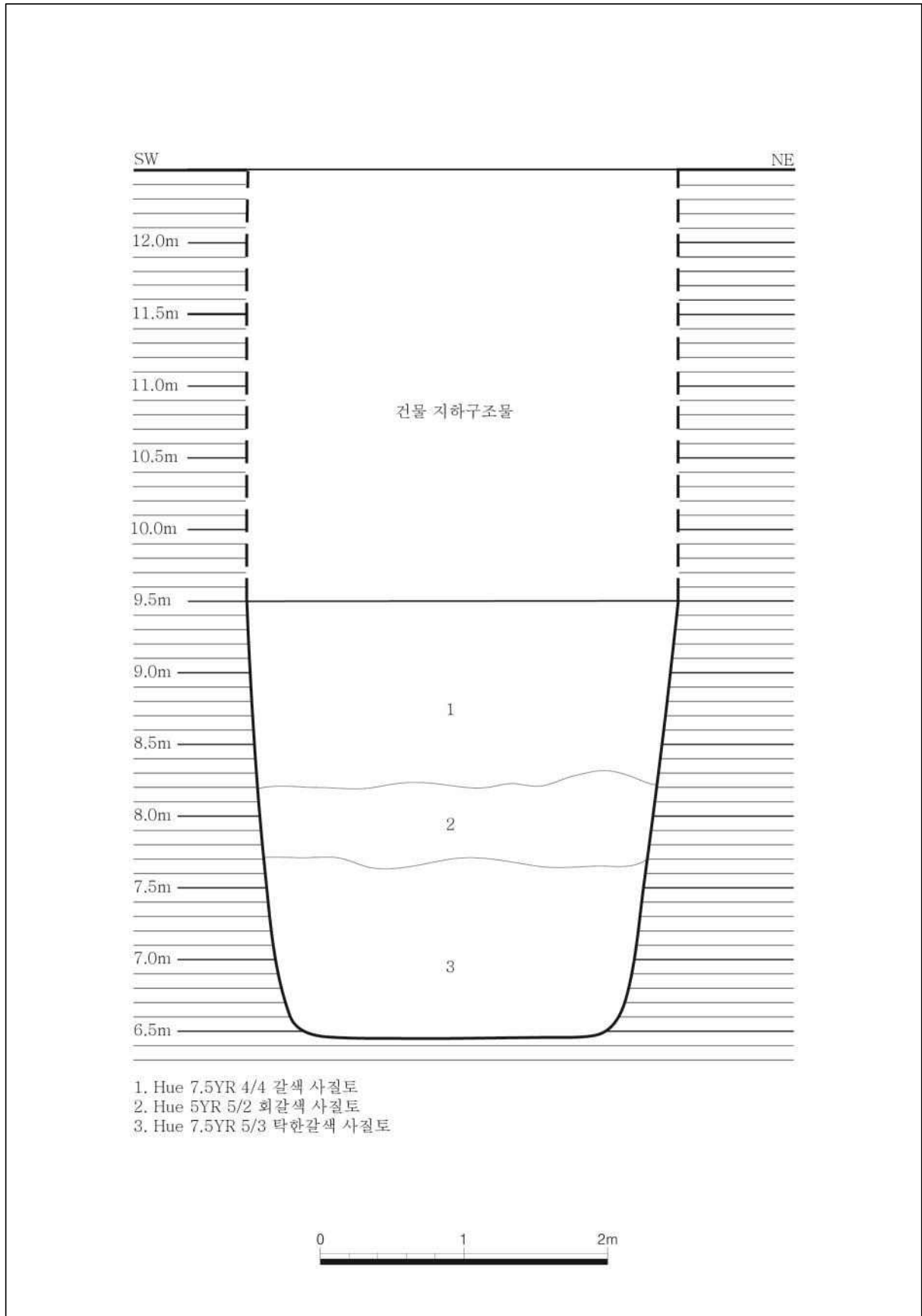
주변에 유구가 확인된 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표 하 1~1.5m 지점에서 조선 후기 경작유구 및 분묘군이 조사되었다.<sup>35)</sup> 그러나 대상지는 지표 하 3m까지 지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사질층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원지형에 형질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층 벽면과 트렌치 바닥에서 굴착의 흔적이나 유구의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표본조사 트렌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번	트렌치 크기(cm) (폭×길이×깊이)	TR 방향	층위	비고
1	200×300×307	북동-남서	건축물 하부구조 - 갈색 사질토 - 회갈색 사질토 - 탁한갈색 사질토	

표 2. 트렌치 제원표

35)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북서지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정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재)수도문화재연구원, 2020, 『서울 자양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2. 트렌치 토층도(S=1/40)



사진 2. 조사지역 항공사진(1972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사진 3. 조사지역 항공사진(1979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사진 4. 조사지역 항공사진(1989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사진 5. 조사지역 항공사진(1999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사진 6. 조사지역 항공사진(2009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사진 7. 조사지역 항공사진(2019년, 출처-국토정보지리원(<http://www.ngii.go.kr/kor/>))

## V. 調査結果

이번 조사는 사업시행자인 오윤석, 유종의님이 시행 예정인 “성수동 1가 31-17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로 면적은 301㎡이다.

1. 조사지역은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며 북서쪽에서 중랑천과 청계천이 흘러와서 합류하는 지점이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학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도’ 의 표본조사지역 내에 위치한다.
2.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이용 현황도를 보면 도시취락지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건설과 철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는 폭 2m, 길이 3m를 기본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1기를 설치하였다. 트렌치는 주변에 도로 및 건물의 붕괴우려로 인해 안전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잔존하고 있는 지하구조물 벽에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였다.
4. 조사결과 트렌치 내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출토되는 유물은 없다. 주변에 조사된 유적은 대부분 지표 하 1~1.5m 지점에서 조선후기 경작유구 및 분묘군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지는 지표 하 3m까지 지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사질층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원지형에 형질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유적의 부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본조사가 완료된 지역(301㎡)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5. 다만, 공사 시행 중 주변지역에서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8. 조사지역 전경



사진 9. 조사지역 조사전 전경(동-서)



사진 10. 트렌치 전경



사진 11. 트렌치 토층





사진 12. 조사 광경



사진 13. 복토 광경